

생약

아키타에는 한방약(생약)의 유서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1700년대 초 아키타번(현재의 아키타현) 번주였던 사타케 가문은 류카쿠산으로 알려진 기침용 생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온 약으로 대대로 민간에서 사용되어 온 이 약은 1871년 제약 방법이 매입되어 주식회사 류카쿠산가 창업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명한 이 회사의 목캔디와 기타 기침약은 현재 핫포초가 운영하는 특별한 재배 및 가공 시설에서 재배되는 전통적인 허브를 원료로 합니다.

주요 허브 중에는 도라지 뿌리와 캐모마일 꽃 두 종류의 허브가 있습니다. 핫포초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생약의 안정적인 일본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이 2종류의 허브를 포함한 27종류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도라지 뿌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료는 모두 중국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많은 약에 사용되고 있는 작약도 재배되고 있으나 수확할 수 있는 크기에 이르기까지 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시설의 연구자들은 재식거리, 숙성 수확, 멸칭 기술 등 다양한 재배 기술 실험을 통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한 식물에서 나는 줄기의 수와 뿌리에 있는 가지의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습니다. 재배자들은 수확 시 치밀한 계산과 측정을 통해 다음 해 재배를 어떻게 개선할지 결정합니다.

도라지 뿌리는 시설 내에서 선별, 세정, 건조됩니다. 두께 1cm, 길이 10cm 이상의 뿌리 부분은 약에 사용되며, 그보다 작은 것은 현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수프, 전골 요리로 소비됩니다. 또한, 뿌리는 로스팅한 현미와 배합해 지역 블렌드 논 카페인 커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캐모마일과 다른 몇 종류의 식물은 허브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제품은 이 지역의 미치노에키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